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22 교육과정 국교위 결정문, 성혁명 제압할 위력 발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지난해 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단 세 줄의 결정문이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성혁명의 해악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음법률가회는 7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 성혁명·차별금지법교육 배제결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통해 지난 12월 14일의 국교위의 결정문의 의의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의 전면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 단체나 전문가들은 물론 교육부 책임자들 모두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국교위가 그동안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스며든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제압할 '신의 한 수' 같은 결정문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국교위가 지난해 12월 14일 밝힌 결정문은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와 관련하여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되, 성전환, 동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

히 안내하라."는 취지의 세 줄로 정리된 문장이다.

이에 대해 복음법률가회는 이 짧은 의견이 결국 성혁명 핵심 개념 전체를 배제하는 놀라운 위력을 가진 결정이 되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조배숙 변호사(전 대한여성변협 회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김학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김영길 박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 15명의 법률전문가들은 개정 교육과정 실행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결정문과 의미 수정고시는 향후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성혁명의 해악으로부터 살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전혀 예상 못한 큰 선물처럼 국민들에게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새로 설립된 국교위가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혁명 교육의 미혹을 이겨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 있게 성혁명 교육을 배제하기로 한 결단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칭찬받고 기록에 남길 일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앞으로 정부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모든 교육관련 행정공무원들이 성혁명 전면 배제결단이 담긴 12월 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 수정 의결과 고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해 올바른 교과서 집필기준을 세우고, 성혁명 교육이 완전히 배제된 교과서들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하는 교육계 내에 뿌리깊은 위험한 성혁명·차별금지법 추진 세력들의 위헌·위법·위험한 행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교육계에서 배제시키는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복음법률가회는 강조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장재호 형제(모로부)

“성경이 없는 아프리카에 성경책 3만 권을 보낼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된다. 이번호 사람풍경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순종해온 한 청년을 만났다. 다양한 순종 끝에 현재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3만 권의 성경책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장재호 형제(모로부)가 이러한 꿈을 갖

기까지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 그의 꿈 이야기를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로부의 사무실에서 들어본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61)

기도의 내용이 바뀌셨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요한복음 14:12~13a)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삶은 어떤 삶인가? 나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

고, 드리고, 신뢰하는 구체적 삶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진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문제해결, 소원성취, 오직 자기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우상에 게 비는 것이나 하나님께 하는 기도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언제 올라갑니까? 주로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급할 때 올라갑니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나마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도 내 교회, 내 문제 외에 특별한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도 정작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일러스트=김경선

가는 실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결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서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그토록 얻고 싶어 하

고 간절히 구하는 그것,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그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그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차이는 바로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스페인, 고요한 풍경 뒤에 부는 성전환의 바람



▲ 스페인 항구도시 말라가의 토요일시장. 제공: WMM

지중해의 환한 햇살이 비추는 스페인 남부의 항구도시 말라가. 1년 중 비오는 날이 50일이 채 안될 정도로 햇빛이 풍부하고, 겨울이 따스한 도시이다. 숙소에서 내려다본 이곳 토요일시장은 소소한 물건들을 사고팔며 여행객의 눈길을 끈다. 말라가의 오후는 평온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아무 일 없는 듯 잔잔한 스페인의 풍경 뒤에는 동성애, 성전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12월 22

일, 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의사 진단 없이 성전환을 가능케했다. 스페인 하원이 16세 이상이면 의학적 소견 없이도 누구나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국가 신분증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고치려면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다는 등 여러 의사의 진단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건이 모두 필요 없게 됐다.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한다면 '전환 요법'이

금지되고, 성소수자(LGBT)를 겨냥한 공격도 처벌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지중해의 햇살을 받아 누리듯, 창조질서의 아름다움을 받아 누리는 스페인으로 회복되길 간구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약 5:19~20)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펜타닐에 이어 '동물 진정제' 혼합 마약 성행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과다 복용이 18~49세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동물 진정제 '자일라진(xylazine)'을 기존 마약에 혼합해 오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필라델피아의 시중 유통 마약 중 자일라진 함유 사례는 90%를 넘었다.

팔다리에 괴사가 생겨 잘라내고도 마약을 계속 투여하는 비참한 이들을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인간의 죄 된 본성을 중으로 삼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탄을 멸하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미국에 마약을 근절시켜 주십시오.

이란, 반정부 시위자 남성 2명 추가 사형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 참여 중 보안 관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을 7일 교수형에 처했다고 현지 사법부 발표를 인용,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12월 2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바 있으며, 최소 10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시위 100일을 넘기며 5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이란의 소요를 진정시켜 주십시오. 정부는 자유를 구하는 목소리를 청중하게 하시고, 시위대는 스스로 복수하며 뜻을 돌이켜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전북 4개 초등학교, 신입생 0명... 지방대 87%, 정시모집 '미달'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전북 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4개교이며, 1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전체 422개교 중 215개교로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한편 4일 국내 언론들은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전형에서 '미달' 사태를 맞은 지방대가 87%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이 없어 낭비되고 있는 교육자원 문제를 국가가 현명하게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세대에게 생명을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가정과 학교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GNPNEWS]

러시아 당국... 기독교 활동 수색해 심문, 구금, 벌금 선고

러시아 당국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기독교 활동을 수색해 범죄로 처벌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10일 전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는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서 경찰이 예배를 위한 모임이나 성경과 기독교 자료 배포나 개인 전도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 활동을 수사하고, 이를 범죄로 처벌해 벌금을 물렸으며, 성도들이 예년보다 인상된 '신앙세(a tax on faithfulness)'를 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헌법에는 종교에 대한 태도나 신념과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19조는 종교에 근거하여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 전역에서 당국자들이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개신교 성도들의 직장까지 찾아가 심문하고 기소했다.

이에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성도들이 광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길 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이 성도들은 단지 집과 교회에서 예배

를 드리고, 자신들의 상점에 기독교 자료를 비치해 두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11월 8일, 페름 지역 아이바 마을의 현지 개신교 교회 장로인 스테판 발레리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5000루블(약 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내무부의 한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한 판결이었다. 보고서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감시하던 공무원 한 사람은 차칭 '개신교 침례교인'이라고 고백한 스테판 장로가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년간 선고 활동을 하고 침례교 교리를 전파하며, 침례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 음악회를 열고 예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및 '러시아 연방 행정 범죄법' 제5조 26항 4부를 위반하여 「믿습니까?」라는 신문 같은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믿습니까?」라는 신문은 러시아 정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법적 인 문제가 없다.



▲ 「믿습니까?」라는 제목의 신문. 제공: 순교자의소리

또한 울리야놉스크 시에 있는 한 개신교 교회의 스테판 프로코포비치 장로는 2022년 2월 19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았다. 그는 언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설교하고, 다른 종교 대표자들과 무슨 관계이고, 언제부터 목회를 했고, 교회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법원은 같은 해 3월 14일, 불법 선교 활동을 이유로 프로코포비치 장로에게 벌금 5000루블(약 9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 과정에서 세 차례의 재판이 더 열렸지만 앞서 내려진 판결들은 뒤집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나딤, 크라스노다르 주 아르마비르, 소치, 울리야놉스크 등에서도 성도들은 러시아 당국의 수사를 받고 벌금을 선고받았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1월 23일 ~ 2023년 2월 18일

1월 23일 ~ 1월 28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23-25(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이**)010-5248-4147, 1.23-27(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27(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27-28 (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1.28(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그 외 10교회 진행중.

1월 30일 ~ 2월 4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31(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31,2.2-4(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2.3(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2.3(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2.3(12시)-4(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9교회 진행중.

2월 6일 ~ 2월 11일 2.6(05-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2.6-8(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2.6-11(07-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산교회(권**)010-7754-1726, 2.9(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2.11(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12교회 진행중.

2월 13일 ~ 2월 18일 2.13-18(07-19시) ▶경기 성남 / 금광교회(이**)010-9183-4198, 2.14-16(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2.15-16(08-20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2.16(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2.17(18시) ~18(18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2.18(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12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이슬람 통치 노리는 유럽 무슬림 유입, 다문화주의의 결과... 한국 무슬림 유입 정책 신중해야

학술지 근동고고학, '유럽 이슬람화가 주는 교훈'

유럽이 다문화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무슬림을 받아들인 것이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의 급성장을 가져왔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되면 유럽에서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자리잡고 이슬람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승빈 목사(전 중동선교회 부회장)는 근동역사고고학회의 학술지 근동고고학(발행인 이일호) 2022년 통권 11호에서 '유럽의 이슬람화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이 유럽처럼 다문화주의라는 관점으로 무슬림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경우, 한국 역시 이슬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목사는 이 기고문에서 "유럽은 지금 자살 과정에 있으며, 영국이나 다른 어떤 서구 유럽국가도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모두가 같은 증상과 질병을 앓고 있다며 유럽의 이슬람화가 교회의 쇠퇴에서 비롯됐으며, 교회가 깨어날 때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더글라스 머레이(논문 '유럽의 이상한 죽음'의 저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유럽 이슬람화의 전초기지가 된 런던은 인구의 37.4%가 무슬림을 차지, 런던니스탄(Londonistan)으로 불리고 있다. 영국 국민당에서 발표한 국립 통계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에 사는 무슬림의 80%가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이슬람사원에서 급진주의를 부추기는 이맘들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결과다.

무슬림들은 국익보다 무슬림 유권자들의 표시 향방에 따라 좌우되는 시의회를 움직이고, 나아가서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움직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선거에서 파키스탄계 무슬림 인권 변호사인 사디크 칸이 런던 시장에 당선되고 2021년에 재선됨에 따라 이슬람 전략이 성공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디크 칸은 이미 차기 유력한 영국 총리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버젓이 지켜지고 있으며, 현재 85개의 샤리아 법정(법정)이 생기면서, 영국의 법관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과 샤리아법 학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영국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기독교에서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 등 그 실체를 말하면 6개월 실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이슬람은 기독교를 비방해도 이 법에 적용받지 않아, 기독교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럽의 이슬람은 2020년 기준 무슬림 인구 약 4270만 명(전체 인구의 5.74%)으로 지난 70년 동안 약 400% 증가했다. 순수 유럽인들의 인구증가를 30%와 비교할 때 무려 13배 이상이나 급증했다.

유럽 교회 쇠퇴가 이슬람 발흥 가져와

유럽에서 이슬람 발흥이 가져오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유럽 교회의 쇠퇴와 직접 관련이 있다. 미국 고든 코넬신학교 세계기독교 연구센터에 따르면, 유럽에서 이슬람교의 성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가 쇠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교회 출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의 비율은 프랑스 60%, 영국 50%, 네덜란드 48%, 벨기에 46%, 덴마크 43%, 노르웨이 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럽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이 퇴보하면서 출산율이 저하하고, 이혼과 동성애 결혼, 불임 가정과 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61년 런던에 모스크는 3개에 불과했으며 당시 교회는 약 5만 5000개 정도였다. 그러나 2005년 교회는 4만 7600개로 줄고 2020년까지 4000개가 더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 모스크는 계속 늘어나 2020년까지 1689개에 이른다. 독일에는 1975년까지 모스크가 없다가 현재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의 모스크는 현재 2500개이다. 프랑스 무슬림 지도자는 무슬림 인구 700만 명을 고려할 때 예배 공간이 부족해 2년 내로 모스크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나야 할 것으로 주장하며,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된 교회 건물의 모스크 개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무슬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게이트스톤연구소 국제정책협의회에 따르면, 유럽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약 3000개의 기독교 교회, 학교, 묘지, 기념물이 훼손되었으며 이런 공격은 공공기물 파손, 약

탈, 배변과 배뇨, 방화로 나타났다. 강승빈 목사는 "유럽에서 이주자의 증가는 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다문화주의 때문"이라며 "이슬람 종교의 가르침과 문화의 특성상 무슬림들은 절대로 유럽인으로 동화할 수 없으며, 유럽은 이슬람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9종 중학교 역사1 교과서 서울 분량에 있어 이슬람이 무려 46.1%를 차지하고 있다. 소윤정 아신대 선교대학원 아랍지역학 교수와 김성욱 아신대 아랍문화연구원은 크리스천투데이의 기고문을 통해, 서술 내용도 친이슬람 포교 목적으로 미화시켜 사실관계와 불일치하거나 종교편향적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엔에서 발행한 역사1 교과서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단원에서는 무슬림이 지켜야 할 의무 다섯 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만



▲ 영국 런던 거리를 걷고 있는 한 무슬림. 출처: Clem Onojeghwo on Unsplash

화로 표현했고, 연이어 이슬람 세계의 확산 과정을 설명한 단원이 나온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으며 내부와 외부 포함 다양한 사진이 곁들여 있다. 또 이슬람 상인의 활약을 기록한 부분에는 '이슬람 상인의 가상 일기를 써 보자'는 학생 창의활동 과제도 있다. 반면 가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는 '크리스티교'라는 이름으로 단지 문화에 대한 언급만 있다. 지학사 발행 중학교 역사1 교

과서 '이슬람 세계의 형성' 단원에서는 메카 방향을 알려주고 꾸란을 음성과 문자로 제공하며,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소 교수와 김 연구원은 "이슬람 편향적 세계사 교과서는 전면 폐기돼야 마땅하고, 엄선된 집필진들로 구성된 객관적 교과서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대구시에 뿌려지는 인종 분쟁의 씨앗

이슬람 인구 유입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으며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2020년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대현동 주민들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를 두고 마찰이 지속돼 왔다. 현재는 이슬람 사원을 두고 공사



출처: Levi Meir Clancy on Unsplash

중지를 명령한 북구청과 이슬람 신자들과의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슬람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는 사원 건축 반대 주민들에게 벌금과 소송비 1570만 원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과 다른 지역의 사원 건축에는 차이가 있다. 테러 단체 탈레반의 미국 침공을 주장한 파키스

탄 무슬림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소 같으면 추방되었어야 할 주최측이 정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며 사원 건축을 지속하고 있다.

'인종'의 특성에는 '문화와 종교, 언어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서구의 이슬람과 소수자라며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연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슬람 비판을 인종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에는 '인종'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혜택과 보호가 주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5년 단위로 순환하고 있다. 중소기업주들이 인력 교체 때마다 번거롭다며 장기체류, 또는 영주권을 요구하는 듯하다. 이렇게 진행되면 70년대 스웨덴의 다문화정책과 판박이다. 오늘날 유럽사회의 성적타락과 도덕성을 퇴보시킨 데 주요한 계기가 된 프랑스 68운동의 주도층인 20대는 낭만적으로 이슬람 이주민에 대한 관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철없는 생각은 다문화의 동화나 공존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가져왔다. 이들 나라는 무슬림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가 되었기에 되돌릴 수도 없이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늘리기 위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남발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이슬람화되어가는 유럽이나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민 중에서 특히 이슬람 이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꾸란의 명령에 따라 폭력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나오고, 분리독립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이나 태국의 내전도 이슬람 분리독립전쟁이다. 프랑스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무기가 발견된 이슬람 사원들을 폐쇄시키는 중이다.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교과서 '진리를 향한 이정표'에 따르면, 단어를 순화했음에도 알라에 거부하는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테러(공포)를 사용할 것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집트의 금서가 한국에서는 이미 번역되어 있다. 문제는 대구시에 탈레반 추종자의 이슬람 사원 건축이 필리핀이나 프랑스 같은 폭력투쟁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S.Y)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장재호 형제 (모로부)



제공: 장재호 형제

• 1면에 이어

- 모로부 카페는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시죠? 카페와 선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로부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모로부는 영어로 ‘more of You’로, ‘당신을 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알리고 싶다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주님으로 더하기 위한 걸음, 공동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 공방이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어요.”

-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나눠주세요.

“저는 7살 때, 영화 인디애나 존스를 보고 전 세계를 모험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인디애나 존스처럼 멋진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래 희망란에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쓰곤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7살부터 선교를 꿈꾸며 살았어요. 14살 때 처음 필리핀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언어공부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선교사 훈련 과정에 참여했어요.”

어린 시절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꿈 꾸

- 10대에 선교사 훈련에 참여한 것이군요.

“영어와 필리핀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필리핀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빈민촌으로 봉사를 나갔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언젠간 이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나가게 될 꿈을 꿔요. 하나님은 마음 속에 빛나는 세계지도도 보여주셨고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

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소망하게 됐죠. 그런데 중국으로 전도여행을 가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나 스테반이 했던 것처럼 이들을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는커녕 이들을 죽이는 상상을 하게 됐어요.”

- 아직 고등학생인데, 어려운 일을 겪으셨군요.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수전도단이 주관하는 6개월간의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잘해서 더 사랑하거나, 못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집단 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아파하셨고, 위로하고 싶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제가 거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경험하게 됐어요.”

- 말씀을 통해 이렇게 회복이 되

걸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월 동안 빈민촌에서 지냈어요. 아이들과 뛰어다니면서 계속 놀았어요. 어느 날 현지 사역자 친구가 처음으로 교제라는 걸 해본다고 하더군요. 7살짜리 아이도 뛰어다니다 제 품에 안겨서는 제가 진짜 친구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은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이후 매년 2번씩 바세코 아이들을 찾았어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현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 친구가 되어주는 선교사라는 게 참 감동이 되네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됐나요?

“23살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어깨를 다쳤어요. 그때, 간부와 선임들에게 쓸모가 없다는 말을 거의 매일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7개월 정도가 지난 뒤 검사를 해보니 연골이 찢어졌고, 흑이 자라고 있더군요. 이제는 진짜 쓸모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 계속 성경을 봤어요. 어느

“
모로부
‘more of You’
‘하나님을 더’
알고
알리고
싶어요
”

의 한 카페로 친구들을 불렀어요. 각자 소개를 하고 요즘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물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한 주 순종한 것이 6년간 400번 이상 모이게 됐어요.”

- 그 모임이 공동체 사역이 된 건가요?

“모임이 9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

재정을 도왔고, 공동체 멤버들이 서로 각자의 재정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를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 그런데 기니비사우에 성경이 없다는 영상을 찍으셨던데, 어떤 사연이 있나요?
“서른 살이 되기 전,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의 여름 사역을 도와드리기로 하고 2019년에 기니비사우로 가게 됐어요. 주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한 걸음이었어요. 그곳에서 영어캠프를 섬기면서 기니비사우에 선교사가 너무 적다는 걸 보게 됐어요. 5년 거주 비자를 그냥 주고, 언어도 쉬운데 왜 선교사가 없을까 생각이 들어, 한국에 돌아가서 이 나라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터에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일정이 멈춰서게 됐어요. 그래서 오디오 소셜미디어(SNS)인 클럽하우스를 사용해서 세계 곳곳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친구들을 온라인에서 알게 되면서 이들과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2021년에 함께 기니비사우로 가게 됐어요.”

-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과 구체적으로 발을 내디뎠군요.

“기니비사우는 대부분 무슬림이에요. 그곳 선교사님이 9년 사역하는 동안 1명의 개종자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영어캠프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캠프가 끝날 즈음에 아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궁금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이곳에는 이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여기에 다시 오는 건 분명했죠. 이것을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눴고, 그렇게 5명이 모여서 캠프를 섬기게 됐어요. 이 캠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잘 때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줬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겠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들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겠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성경을 붙잡고 이 길을 걸겠다고 했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9년 동안 1명이었던 개종자가 몇 명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캠프를 통해 한 아이는 요한일서 1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믿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이제 멸시를 받을 거야. 그런 걸 경험해도 괜찮니?’라고 물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게 슬플 뿐’이라고 대답하더군요. ‘네

• 5면에 계속



▲ 필리핀 바세코의 현지 아이들과 함께. 제공: 장재호 형제



신 거군요.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제가 선교사인데, 무엇을 준비하기 원하시나?’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걸 연습하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바세코라는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걸 좋아했는데, 갈 때마다 그곳 아이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어요. 내가 꿈꾼 선교는 친구가 되어주는 건데, 이

날, 제 고개를 들어주겠다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어요. 주로 쓰레기를 줍다보니 별명이 쓰레기가 됐어요. 그런데 저를 쓰레기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전출을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일을 찾아 다니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어요. 군 생활 절반이 지난 때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게 감사했어요.”

- 군에서도 선교사로 섬기셨군요.

“전역 이후 노르웨이에서 ‘공동체 학교’라는 훈련을 받게 됐어요. 카페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계속 노르웨이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공동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한 걸음씩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2016년 12월, 홍대

실까? 질문하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자훈련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몇 개월 기도하다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계약했어요. 그곳에서 모임도 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됐어요. 기부 받은 에코백에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필리핀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주기로 하고, 함께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생기니 사진이 남게 되고, 그 사진으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공방이 만들어지고, 어머니께서 에코백 만드는 법을 배우셔서 계속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제빵기술이 있는 친구들은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영상을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나중에 카페까지 열게 됐어요. 카페와 공방에서 나온 수익들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익이 많지 않아서 저는 한동안 영어 학원에서 일하면서



▲ 오프라인 제자훈련 모임에서. 제공: 장재호 형제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자로 활동하는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지난 10월 우리 교회는 Y를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원래 무슬림이었던 그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V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Y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그녀는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Y는 D도시로 옮겨졌지만, 신뢰했던 지인이 그녀가 복음전도자라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하고 분란을 일으켜 그곳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크게 상심했고 신변의 위협도 느껴, 우리 공동체에서 2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Y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핍박에 대해 나누는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차원의 소망과 비전이 되어 우리 팀으로 합류했고,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Y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V지역으로 들어가 정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혼자 사는 아줌마가 이사 온 것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며 이것

저것 캐묻고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Y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잔치자리에서 한 아줌마가 Y 옆에 앉더니 본인은 성경을 읽고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Y전도자는 깜짝 놀라서 그런 이야기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마을에 한 복음전도자가 들어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여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일로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그 전도자를 붙잡아 때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와서 불을 끄고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사역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볼 수도 없고, 사역자 소식을 물어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자가 뿌린 씨앗은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소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계속 그 복음을 간직하고, 몰래 성경

을 읽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예수님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밝힌 그 아줌마는 자기 고향 마을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첫째로 그 사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그 땅을 여는 열쇠가 된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Y가 고향과 D도시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이 느껴져 그녀는 마음이 크게 상심됐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Y가 저희와 한 팀이 되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셋째로 저희 팀이 오랫동안 V지역에서 기도 사역과 복음전도



▲ I국의 현지인들. 제공: Y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어서 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뿌린 눈물과 기도와 복음의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보내시는 사람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곳으로 부르시면 충성스럽게 뿌리고, 거두는 곳으로 부르시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V지역은 강경 이슬람 구역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Y가 그곳에 들어간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외부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누가 복음전도자인지 쉽게 눈치채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그동안 전도하고 양육했던 사람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이 Y를 자주 만나기 어렵더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I국=Y 선교사

• 4면에 이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 기니비사우 형제들과 함께. 제공: 장재호 형제

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데,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겠니?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Why not?(안 될 거 없잖아요.)'라고 답을 했어요. 캠프 마지막 날, 무슬림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묵상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울고 선교사님도 많이 우셨어요.”

- 부흥을 경험하셨군요.
“이 아이들과 점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책

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줄 수 없었어요. 그 나라는 6개월째 성경책이 없는 상태였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킬 거라고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도, 정작 전해줄 성경이 없다는 것이 답답했어요. 그러다 마침 이 일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니비사우 기독교협회장님과 연락이 닿아 관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3만 권 인쇄하기로 이야기가 됐

어요. 주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국에 돌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사실을 알렸어요. 펀딩 사이트보다는 이 멋진 일을 증인이 된 우리의 입으로 알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됐어요.”

-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군요.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이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컨테이너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노하우가 많은 분이셨어요. 목사님은 중국에 성경을 가져갈 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들고 간다고 하더군요. 컨테이너로 들어가면 관세가 많이 나올 경우,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으면서도 3만 권을 나눠서 배달해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팀을 꾸려서 가면 한번에 5000권에서 1만 권 정도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더군요.”

-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네요.
“이런 와중에 제가 올해 3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함께 제자

훈련도 하고 아프리카에도 같이 갔다 온 자매예요. 잔치를 베풀어도 값은 것 없는 이들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따라 바세코 아이들과, 아프리카에서 파티를 열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 축하드립니다. 선교 사역의 제 2막이 열리겠군요. 끝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더욱 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니비사우 아이들에게 책을 몇 권 읽어줬냐고 물으면 1권, 2권, 7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건 선교사님이 주신 팸플릿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나라에는 책이 귀해요. 성경을 계속 인쇄해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에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림책도 만들어서 가져가고 싶어요. 이런 꿈을 꾸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모로부라는 공동체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으로 더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GNPNEWS]

Y.K.

복음의 능력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다.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정에 병사들이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들이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상상해보라. 기도하지 않는 엘리야를 상상해보라. 기도가 없었다면 그의 삶에서 에너지와 담대한 도전과 열정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겔옷으로 요단 강물을 아무리 쳤다 할지라도 강물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엄한 죽음의 천사가 불수레와 불말들로써 그를 높이지 않았을 것이다.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6)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대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공의로 빛을 갠 누군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 대신 빛을 갠 게 하셨다.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을 마련하셨다. 이것이 ‘대속의 의’이다.

스스로를 속량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당신이 모든 죄값을 친히 다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받아내셨다. 가장 완벽한 주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한 뭇을 남겨 놓으셨다.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내가 직접 죄값을 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온전히 취해 그에게 일어난 일을 내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면 된다. 즉,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실 때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되어 죽으셨으니, 그분이 죽으실 때 그렇게도 변하지 않던 내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죽음에 넘겨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명의 주권을 드리고 새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삶을 살게 하신다. 드디어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나 죄와 상관 없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죄에 자유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첫 창조 때는 말씀으로 하셨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서운 죄에 팔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의 옛 생명을 끝내셨다. 천지개벽보다 더 어려운 일을 이루셨다.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이루신 그 일을 내게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는 죄가 주인 노릇 못하고 다시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도록 이루어 놓으셨다. 이 꿈꾸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일러스트=이예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신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헤브론선교대학교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복음성경학교

2023

성 경 을 통 해
하 나 님 을
사 랑 하 게 되 는
복·음·성·경·학·교·에
초 대 합 니 다

복음성경학교는 성경 지식만을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 말씀안에 드러난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3 복음성경학교 신입생 현재 모집중!

모집대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학사기간
총 1년 과정 중 한 학기(상반기에는 구약, 하반기에는 신약으로 진행)
구약, 신약 각각 15주 과정(월요일 저녁 ~ 금요일 오전), 기숙으로 진행

개강일 2023년 3월 6일

등록금 250만원

참여문의
아래 번호로 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복음성경학교 010-2447-4641

헤브론선교대학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hufm>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영양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는 분우대)

연수원소장
(수련원, 연수원 근무 경험자우대)

문의

☎ 삼성연합의원·삼성초대교회 | ☎ 010-8528-3217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친동성애 교단에서 나온 후 예수교회로 순종하는 기쁨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도가 모인 유기적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 공동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성경공부, 섬김과 봉사, 구제, 여러 선교지들을 다녔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커녕 세월이 갈수록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은 없었고, 죄에서는 한 발짝도 멀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긴 교회생활의 연륜으로 판단과 정죄, 회개를 반복하면서도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것이 나의 실체였다.

그러나 복음학교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다. 그러다 최근, 오랫동안 불거진 미국 연합감리교단의 동성애 이슈로 교회와 성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더 이상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자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성도들

이 주축이 되어 교단과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회들도 문을 닫는 이때에, 또한 아직 절반 수준도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많



일러스트=고은선

인데, 지금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등 수없는 부정적인 말도, 비난도 큰 어려움은 되지 않았다. 진짜 어려움은 목회자 없이 성도들끼리 진리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다음세대, 선교, 교제, 구제와 사회정의 실현 등 각자가 중점을 두고 싶어 하는 교회들을 향한 다양한 요구와

각각의 생각들이었다. 30~40년 넘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 안에도 서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기 시작했고 기도했다. 우리는 단지 하나로 연합될 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교회회복을 위한 복음성경학교'를 담안지처럼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8주간 진행된 복음성경학교 강의를 들었다.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생명을 가진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지 알게 되며 다함께 감격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회복을 위해 조직, 프로그램, 건물, 성도 수의 확장을 꿈꾸는 자가 아닌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생명으로 이끄는 교회로 설 것을 선포했다. 우리는 지금 중보기도팀을 이루고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기도를 하고 있다. 교회와 다음세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구하고 있다. 우리는 또 교회 건물을 사거나 불필요한 조직과 시스템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교회의 비전이 된 다음세대를 세우고 선교에 집중하기로 했다. 예수교회로의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더욱 기대한다. [GNPNEWS]

탁은숙 (샌디에고 주사랑교회)

부흥을 위하여

北, 평양에 숨어든 꽃제비들 집중 단속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에서 거주지 불명의 꽃제비들이 평양에 숨어들어와 여기저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북한 당국이 꽃제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사회안전성은 1월 말까지 평양시 지하철 운행 종료 1시간 전까지 꽃제비들이 떠도는 지하철역에 감시원, 안전원, 임시 사민 규찰대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하고 외부인이 평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지시문을 내렸다. 특히 안전성은 지하철역 내 꽃제비 집중 단

속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도록 했는데, 이는 만경대구역에 있는 광복역 내 화장실에 숨어 지내던 10대 꽃제비 소년들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과 관련돼 있다고 매체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시신 부검 결과 위장에 아무것도 없어 물로만 버티다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내부에서는 '소년이 다른 지역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평양시 보위를 잘못된 것으로 날벼락을 맞을 수 있어서 정확한 신원 파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안전성은 꽃제비들이 평양시에 들어올 수 없게

하고 단속하면 그대로 돌려보내지 말고 모두 간이 방랑자 집결소와 구역 안전부대 기실에 임시로 잡아두고 거주지가 확인되면 다른 지역 시·군 안전부대에 연락해 데려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평양시 주민들도 추위를



▲ 양강도 해산의 어느 거리의 꽃제비 모습. 출처: 데일리NK 캡처

피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들어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안전성은 3시간 이상 지하철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은 모두 수상하게 여기고 단속하고 잡아들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GNPNEWS]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독교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심리·사회적 요인의 정신 질환엔 '복음'이 필요하다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8)

고혈압, 당뇨와 같은 내과적 질환은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서 꾸준히 조절을 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와 같이 정신 질환 중에서도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약물로 잡아주며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들이 있다. 그러나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정신 질환의 주요 원인인 경우에는 100% 약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나 혹은 자존감이 낮거나, 특정한 성격적 특성과 같은 여러 심리적 요인으로 정신 질환이 생긴 경우, 일반적으로 상담 치료, 미술 치료, 여행, 운동, 춤 등의 취미 활동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권유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일시적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취업이 안된다거나, 시험에 실패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개인적, 사회 문화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 질환도 있다. 이러한 질환의 원인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것이기에, 이것은 더더욱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원형으로, 새로운 시야로 바라볼 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애인과의 이별,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부부 갈등, 고부 갈등,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등 이러한 여러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신다. 그러나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불완전한 관계이기에, 계속 기대와 실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충족을 얻는 것만이 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부 치료, 가족 치료, 집단 치료, 사회기술훈련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말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충족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정신적 어려움도 치유될 수 있다. <계속> [GNPNEWS]

北 보건성 “의약품·의료기구 보급에 총력”

새해 북한 보건 당국이 올해 의약품과 의료기구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훈 보건성 부상의 노동신문 인터뷰를 인용,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부상은 또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전역에 공급할 물량이 부족한 의약품을 해외 수입 등으로 조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선양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북한의 중국 수입 의약품은 2548만 달러어치에 달한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은 지난해 11월 어린이와 임산부 약 11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각종 백신을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가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박기범 하버드대 의대 한국 보건정책 프로젝트 국장은 지난해 11월 콘퍼런스에서 2000년대 후반 방북 경험을 전하며 “북한 대학 병원에서 외과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메스를 건네받았는데 녹이 슬어 있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로버트 인디애나의 <사랑은 신(Love is God)>

하나님 외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

미국의 팝아티스트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는 LOVE 조각으로 유명하다. 그의 이 대표작은 대단할 것 없는 일상에서 시작되었다. 1964년 작가는 몇몇 지인에게 직접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는데, 다음 해 MoMA의 성탄 카드 디자인에 뽑혀 미술관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렸던 것이 계기로 전해진다. 이 카드 그림이 바로 LOVE이다. 글자 형태도 이렇다 할 만큼 독특하지도 않을뿐더러, 파랑, 빨강, 초록의 글자색 역시 작가의 아버지가 일하던 필립스66 주유소 색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른 작품처럼 잘난 척하거나, 어렵지 않았던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기작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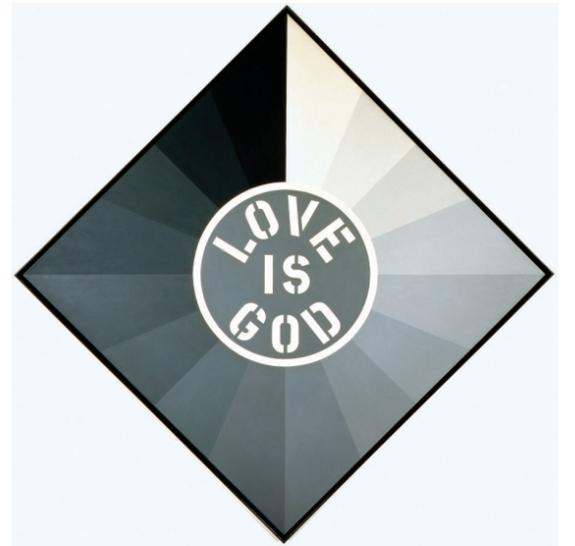
하지만, 인디애나가 말하는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예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갓난아기였을 때 인디애나 출신 양부모에게 입

양되었던 그의 본명은 로버트 클락이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양부모 덕에 고속도로에서 유년기를 보낸 그는 양부모가 이혼하자 편부의 손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인디애나는 심각한 애정 결핍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클락이라는 성 대신 인디애나로 다시 태어나고자 했던 점, 미술가 엘스워스 켈리와 동성 관계에서 결핍을 보상받으려 했던 일화 등이 그렇다. LOVE는 전작 <사랑은 신>에서 파생되었다. 인디애나가 어릴 적 다닌 교회에는 '하나님은 사랑(God is love)'이라는 문구가 붙었는데, 이를 '사랑은 신'으로 바꾼 것이다. 그 교회는 재정난으로 앤디 워홀에게 팔려 작업실로 개조되었고, 인디애나는 워홀의 집들이 선물로 <사랑은 신>을 만들었다. 어쩌면 워홀의 교회 정복을 축하하는 전리품 같은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LOVE의 속뜻은 뭘까. 불행한 소년에 무관심했던 교회에 대한 원망일까. 동성애인에게 갈구했던 욕망일까. 아니면 결핍된 부모의 사랑일까. 같은 글자이지만, 인디애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온갖 종류의 사랑을 주장했으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만 제외하였다. 메인주 외딴 섬에서 평생 은둔하다 쓸쓸하게 생을 마친 인디애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양상한 결핍을 드러낸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좌] 뉴욕 거리에 설치된 로버트 인디애나의 <사랑(Love)>
[우] 로버트 인디애나, <사랑은 신(Love is God)>, 1964, 캔버스에 유채, 172.7 x 172.7 cm, diamond.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들풀의 은혜, 성도 최숙분님의 소천을 추모하며

금홍사역단체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화 선교사)가 지난 2013년부터 섬겨온 성도 최숙분님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소천했다. 세상에서는 치매 노인으로서 어느 누구의 보살핌도 받을 수 없는 이 한 분을 섬겨온 박혜인 선교사가 고인의 죽음을 조사로 기렸다. <편집자>

2022년 12월 24일 오전 7시 30분경 크리스마스 이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에 최숙분 어르신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슬픈 마음을 추스리며 하루를 지나는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할머니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 마치셨구나. 가장 아름다운 날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셨구나. 이렇게 복된 날 주님 나라에 입성하신 우리 할머니가 누구보다 복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1937년 일제시대에 한국에 태어나 꿈 한번 제대로 펼칠 수 없던 그 시절, 어여쁨, 귀히 여김, 따스한 손길 한번 받지 못했으 그 시간들. 전생 속 굶주림, 배고픔, 가난과 추위, 쾅쾅 언 손으로 동생들을 거두고 부모를 도우며 수고롭게 지냈을 그 소녀의 시간이었겠지요.

언젠가 할머니 동생 분들을 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병상에 누워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꽤나 낯설어 하셨습니다. 언제나 대쪽 같고 강인하셨으며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참 많은 것들을 감당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을 품으시고 거두셨고 키워내신 아량과 배움이 그분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치매로 기억력이 하나둘 사라지고 끝내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 딸 김정화. 이제 김정화 선교사님은 할머니에게 받은 금홍과 사랑의 섬김을 주님이 허락하신 10명의 아이들을 거두어 섬기는 길에 모든 삶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7년을 묵묵히 할머니를 섬긴 가지혜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의 몸에 일부였던, 삶과 같은 삶의 일부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다고... 새벽에 할머니 기저귀를 갈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매일 반복되던 일상 속에 할머니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며 기저귀를 갈던 쳇바퀴가 멈추고 한동안 멍하니 분주하던 손을 붙들어매야 하겠지요. 함께 힘을 다해 수고한 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선아, 혜원, 숙정, 솔선

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10년 전 와상으로 누우시기 전 유난히 정신이 또렷하셨던 어느 날.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가 606장을 분명하게 부르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그 찬송가를 배우셨을까. 정화 선교사님이 붙들고 앉혀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똑바로 말해보요. 교회 다니는 적 있지요? 그 찬송가 어디서 배웠어요? 제대로 기억해보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동네 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는 적이 있노라 대답하시고 그날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다. 지금쯤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가장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안히 계시겠지요. 함께 만나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그 날이 소망됩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전 생애 모든 삶을 다한 수고와 인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정화 선교사님도, 우리도, 지금 우리 아이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사신 할머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삶으로 그 사랑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의 생애를 기억하며 한 편의 시로 어르신의 삶을 추모합니다. [GNPNEWS]



▲ 성도 최숙분님 장례식장. © 복음기도신문

들꽃

들풀처럼 나서 짓밟혀 잊혀졌을 한 사람
가만히 들여다 눈여겨 보시고
시간 시간 굶이 굶이 인도하셨네 ...
누구도 기억 못할 외로운 인생을
불행히 으스러져 숨졌을 생명을

고이고이 그 품에 안으시고
아름다운 생명 날게 하셨네 ...
죄와 슬픔 가운데 저주로 끝날 생명을
온 땅에 열매 맺을 밀알로 삼으셨네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2. 12. 21 ~ 1. 10 (가나다 순)

개인 권순호 권태선 권혜령 김광희 김선례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영순 김지영 김태일 김형숙 김혜신 단현철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윤재선 이상연 이상현 이영옥 이정희 이주선 이진희 정요한 정지순 정진미 조명숙 조형광 차상복 최은석 최은설 최임주 최점옥 최정미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기도24365본부 동원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샘물교회 순회선교단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오예교회 은강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처음사랑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